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 18:1)

주간 충헌

발행인: 김 창 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552-8200 · FAX 552-2925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본교회 새 담임목사에 신성종목사

10월13일 공동의회서 만장일치 가결

카메라 초점



본 교회는 지난 10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소집, 새로운 담임목사에 신성종 목사를 만장일치로 가결, 청빙을 허락했다.

공동의회에는 3,290명의 세례교인이 참석하여 임시당회장 김창인 목사 사회로 진행, 찬송 376장을 힘차게 부른 뒤 이태규 장로의 기도, 성경 시편 122편 전장을 봉독한 후 "예루살렘"이란 제목의 설교를 김창인 목사가 은혜롭게 말씀했다.

곧이어 당회 부서기 이종국 장로(당회서기 외유중이므로 유고시 대행)가 참석자 보고와 임시당회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신성종 목사에게 대한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가부를 제안 참석한 전 세례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당일 오후 4시경 당회를 대표한 장로 4인(이태규, 김차생, 오진국, 이종국)이 대전중앙교회 신성종 목사를 방문, 충헌교회 공동의회 결과 및 청빙서를 전달하고 본인의 승낙을 받았다.

신성종 목사는 시무하시던 대전중앙교회를 16일 수요일에 끝으로 사임하시고 동교회가 마련한 송별예배를 마친 다음 17일 본교회에 부임했다.

공동의회 스케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본교회 담임목사로 추대된 신성종 목사를 공동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순간 본당에 가득 메운 세례교인들은 「아멘」과 「박수」로 환호했다.

누가 시간 알고 아니었는데 박수가 우렁차게 흘러나왔고, 세례교인들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사회하시던 원로 김창인 목사님도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목메임 음성으로 하나님

께 감사를 드렸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3일까지 26일간 우리교회 후임 당회장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염원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이날 성령님의 역사로 충헌교회 새역사의 장을 활짝 열리게 되었고, 하늘문이 열리며 천사들의 기쁜 찬송소리가 메아리친 축복된 순간이었다.

교구별로 자리를 함께한 성도들은 지도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감격의 순간을 피차 교제했으며, 밝은 웃음과 상기된 얼굴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새로운 담임목사에 기대를 걸었다.

이제 우리 충헌교회는 지난날의 모든 전통, 불신, 모두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평안과 위로, 사랑과 권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성장되기를 계속 기도해야 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이 신앙대열에 낙오자가 없도록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반목과 질시의 늪을 헤쳐 황금보석 꾸민 주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싶다.

신성종목사 환영예배

본교회 담임목사 신성종 목사 환영예배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만나홀에서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회 임원들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인 원로목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찬송 33장을 다같이 부른 뒤 윤종순 장로의 기도, 성경 전도서 3장 11~15절 봉독 후 "아름다운 일생을 살려면"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①천국의 소망, ②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③수고의 열매와, ④분수를 지키고, ⑤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역설했다.

신성종 목사 소개가 있는 후 새로 부임한 신성종 목사가 인사말에서 "원로목사의 좋은 목회 체험을 개승하겠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함은 물론 재가 충헌교회를 섬길 때에 계속 기도와 권면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회원 자진 근신기로 결의

본교회 당회는 지난 17일(목) 저녁 신성종 목사 환영 감사모임을 마친 후 임시당회를 열고 이번 교회가 당한 시련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회원인 장로들의 부덕과 감독 소홀에 있음을 통감하고 자중자애하는 뜻에서 10월 20일 주일부터 11월 마지막주일까지 공적 예배의 기도 위원으로써

책무를 유보, 근신기로 결의하였다.

시중 은혜 속에 진행된 본 임시당회에서는 전 당회원이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신임 담임 목사 부임과 동시 충헌교회의 본래 모습 찾기에 영적인 힘을 다해 죽도로 헌신 봉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경암송대회 오늘 실시
각 교회학교별로 진행토록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10월 20일(주일) 각 교회학교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암송대회 암송범위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이며, 각 부서별로 암송범위가 분류되어 있다.

진행 및 심사는 각 교회학교

부장 책임아래, 부장과 차장들이 관리케 되며, 최종 특등 심사판 성경암송대회 준비위원회가 별도로 삼사케 된다.

심사결과를 당일 오후 5시까지 진행본부인 선교관 401호(교육원 원회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상식은 다음주에 실시한다.

성경암송대회 준비위원 명단은



▲ 지난 17일 있었던 신성종 목사 환영 감사예배



△ '91년도 안수집사·권사 교육 개강예배

다음과 같다.

△준비위원장: 손경수장로,
△서기: 박영식장로, △회계:
김재명장로, △총무부장: 최무길
장로, △차장: 양종섭집사, △위

원: 신종명집사, △전행부장:
엄필성장로, △차장: 원웅철집
사, △위원: 양병진집사, △심사
부장: 박용삼장로, △차장: 이동
명집사, △위원: 이부성집사.

부흥사경회 개최

10월28일~31일까지

당회는 성도의 신앙향상과 교회부흥을 위하여 오는 10월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본당에서 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부흥회 시간은 새벽 오전5시, 저녁 오후 7시이며, 강사는 이만신 목사(동대문 소재 중앙성결교회 시무)이다.

이번 성회에 성도들의 기도 준비와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청년2부 27일 특강
갖기로

청년2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도 김정우 목사)는 오는 10월 27일 오후 1시 30분 소석관 517호에서 특강을 갖는다.

김정우 목사를 강사로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구원과의 구원관과 그 문제점을 살펴볼게 된다.

교계 신문, 방송 기자회견

교회는 신성종 목사가 담임목사로 결정됨에 따라 10월 14일(월) 오후 6시 회의실에서 교계 신문, 방송기자들의 방문을 받고, 원로목사와 신성종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계 중진 기자들은 역시 대교회답게 충헌교회 문제가 은혜롭게 처리되었음을 공감하면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충헌교회가 되어줄 것을 소원했다.

시편강해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주의자

(시 53:1~6)

김 창 인 원로목사

충신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반역자로 몰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산과 들로 도망다니는 다윗은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낙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도망다니는 처지에 놓이기는 했지만 어떤 일이 생겨도 부족한 종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한번은 히브아산에서 신하를 모아 놓고 “너희들은 다윗이 왕이 되길 원하지. 왜, 요즘은 다윗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나.”하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도엑이란 자가 “대왕이여, 반역자 다윗이 도망가다가 늪땅이라는 곳에 들렀는데 그곳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습니다.” 이를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85명을 불렀습니다. “너희 놈들 반역죄를 함부로 범하느냐!” 이를 들은 아히멜렉은 인간적으로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반역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윗 장군은 우리 나라의 유명한 충신 이요 용맹스런 장군이며 임금님의 둘째 사위인데 그에게 떡을 준 것이 반역죄가 되겠습니까?” 사울왕은 군인들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으나 누구도 칼을 뽑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울은 도엑에게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엑은 충성심을 가진 것처럼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늪땅으로 가서 제사장들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도망다니던 다윗이 듣고 시편 53편을 지었습니다.

1. 죄에 빠지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으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런 생각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듯 끊어져버렸고, 선한 일에 충성된 자를 찾기 힘들고, 거짓말로 성공하는 비결을 삼고, 세력 가진 자에게 아첨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선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표리가 다른 가증한 세상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 53:1)

어리석어서 죄를 범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무식해서 어리석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햇빛 밑에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운데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자기만이 가장 위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부패란 썩었다는 말입니다. 썩은 물건은 냄새가 나고 균이 생깁니다. 이 균은 모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부패한 자는 자기에게 쓸모가 없고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도 쓸모가 없어 버림당하는 날이 옵니다. 또한 부패한 자는 그 소행이 가증합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못나고도 잘난 것처럼 하고, 더러우면서도 가장 힘있는 자처럼 뽐내고, 가장 악하면서 가장 선한 것처럼 자처하고, 가장 무서운 반역자이면서 가장 애국자인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에서 살피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시 53:1, 2)

선이란 무엇입니까. 윗사람이면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선이고 아랫사람을 밟아 죽이고 착취하는 것은 악입니다.

마음이 가증하고 부패한 자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멸망케 해

다.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교훈에 순종하고 정성껏 모시는 것이 선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즉” 지각이란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부모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선생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지각 없는 양은 목자를 떠나서 이리때에게 속아 끌려가다가 결국은 잡아 먹힙니다. 지각 없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자는 필경 악마에게 이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있는 자가 없구나 하고 탄식하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모릅니다. 이렇게 지각 없는 사람들은 필경 자기도 망하고 남도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필경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시 53:3) 생명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 생명이 죽습니다. 빛되신 하나님을 떠나니 어둠에 빠집니다. 지혜의 근본되신 하나님을 떠나니 어리석어집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떠나니 악마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지혜야지 물러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죄악 행하는 자는 무지하도 저희가

떡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시 53:4)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어지고 더러워진 자들은 의인을 죽이고서 웃고, 약자를 밟고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우쭐댑니다.

2.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고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자를 모르시는 것 같으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모두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손을 드십니다. 축복의 손을 드신 하나님 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심판의 손을 드신 하나님 밑에 있는 자는 뼈가 부러집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다윗이 있었으면 넉넉히 이겼었는데 다윗이 없는 때인지라 전쟁에 밀리고 밀리면서 도망가다가 길보아산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셋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도망가다

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잘못이라 하면 떠나고 옳다고 하면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인줄 알고 끌려가면 그 진이 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 하리로다”(시 53:5, 6)

여기서 야곱이란 약한 자를 말합니다. 지식도 모자라고 가난하고 권세도 없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춤을 춥니다. 위험한 곳에서 보호받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던 자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약자였던 야곱이 즐거워합니다. 죄를 범했던 야곱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받은 자는 때가 되면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는 모두 무신론주의자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안보시겠거니 하는 무신론주의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죄를 범합니다.

3. 결 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되지 말시

환란과 고난 중에서도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아

은 무섭습니다. “저희가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陳)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흠으심이라”(시 53:3)

앗수르군대 18만5천명이 히스기야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건디자니 양식이 없어 몸이 약해지고 병든 자가 많아져 큰일이었습니다. 그때 진을 친 앳수르군대는 며칠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 하여 춤을 춥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왕의 기도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시어 앳수르군대를 자기들 진 안에서 천사의 손에 의해 죽게 하였습니다. 악한 자의 진에 쫓여 있던 자들은 죽었습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부패한 자는 가증한 일을 하고, 가증한 자는 약자를 괴롭힙니다. 가증한 자는 교만하여 자기의 진은 영원히 튼튼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제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러나 떨며 두려움으로 섬깁시다.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 꽃피고 열매맺는 행복의 때가 오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논 단

범죄와 기독교 (2)

김용진 박사(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비록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분명 깊은 관련성은 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중 작은 자 하나에게서 발견된다는 그 말씀은 특히 폭력범죄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의 모습, 즉 그들의 안녕이 범죄행위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 모습을 그려보면 바로 범죄 희생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믿는다. 폭력범 앞에 덜덜 떨고 있는 힘없는 피해자가 바로 헐벗은 자가 아니겠는가?

폭력을 당한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 그 놀람의 후유증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정, 이해, 후원을 에타게 기다리는 굶주린 사람들이 아닌가? 비록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대상이 분명 아닌

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때에 어찌면 범죄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제자도를 측정하시지는 않으실까?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기독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써 바로 범죄 희생자에 대한 사건을 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여기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독교회의 반응의 핵심을 이 비유가 말하고 있다. 우리 중 몇이나 이 비유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강도 만난 자가 길가에 누워있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자임을 인정하려 할까?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그냥 지나쳤다고 합리화시키지나 않을런지 모르겠다. 우리는 너무도 바쁜 일과와 중요한 업무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도울 만한 시간을 도무지 찾지 못해서 그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즉각적인 관심과 반응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는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회생을 무릅쓴 사람은 당시에 철저히 무시되어진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또한 예수님이 주신 이른바 황금률의 한 부분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비유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주시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범죄 피해자를 돌보는 모델로 삼아져야 한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되 자비로운 이해와 실질적인 도움을 동시에 갖춘 도움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강도 만났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기타 형태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로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비유가 또한 분명히 지시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 이상의 노력이 사실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또한 중요한데 이는 물질적 구호, 교통편의 제공, 의료구호, 또는 기거할 처소를 마련해주는 등 여러 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구역순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각자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선한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그들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이번주 주간충현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제9교구 의정부구역(구역장 송명희 집사)을 찾아 보았다.

의정부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역시 의정부구

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리라.

지역이 교회에서 멀다보니 전도를 통한 구역 부흥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교회로부터 “25퍼센트 부흥”이라는 성장 목표를 전해 듣고는 막막하기까지 하였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도하기를 지레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꾸준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시키고 있다.

이들은 신앙의 질적 성장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몇 십년씩 교회에 출석하면서 옛사람이 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말씀통해 새로운 은혜체험 -제10교구 의정부 구역-

역에 소속된 성도들 대부분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은 매주 금요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역에 모여서 기도와 말씀 공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구역 식구들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특히 구역장 송명희 집사는 막대기보다 못한 부족한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돼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인도를 위한 준비를 한다. 헌신적인 준비가 깃들어 있는 구역예배

안타까워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대화를 나누며 함께 기도한다.

구역 식구들은 하나님의 연단이 너무나 길다고 느껴질 때도 있으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케 하시고, 성경 말씀을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 운동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내세울 것은 없지만 일상적 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돌린다면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학생회 출판부

예수 운동과 혁명 셰일러 매튜스 / 대장간
예배 갱신과 목회 감리교신학대학원집부 / 출판부
인간 개혁 전가화 / 은혜사
사회 선교와 기독교 윤리 고재식 / 대한기독교서회
생존을 위한 윤리 맹용길 /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 농어촌전도를 다녀와서

정선, 그 환상적 이름은

윤송죽 집사(제17교구 · 신현교회 파송팀)

정선 / 평소에 나는 정선이라는 곳을 도회지의 혼탁함과 아주 멀리 있는 곳일 것이라는 꽤 환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늘 겨울만 되면 완행 열차를 훌쩍 타고 눈 덮인 정선에 그저 지나가다 대린 것처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리움 비슷한 것이 깃든 곳이다. 그 정선에 “전도여행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나이를 잊은채 떠들었다. 기실 나는 “하기농어촌전도대원” 신청도 그래서 했던 것이다. 70인 전도훈련을 받을 때도 줄곧 전도 능력달라고 기도해 놓고도 “내가 전도를 해? 글썽...”하는 정도였음을 고백한다.

하여튼 드디어 7월 29일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홍성 목사님을 따라 23명의 대원은 5대의 승용차와 1대의 베스타에 나뉘어 타고 정선을 향해 출발했다. 이미 며칠 전에 전도대장 윤장원 집사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정선 현지 상황 답사를 다녀오셨던 터였으므로 윤 집사님의 차를 선두로 하여 황둔, 장릉, 백운, 정선 코스를 잡았다. 물론 성령님께서 보호, 인도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출발했으므로 무엇이 문제라 싶었지만 초행길인 나에게는 운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원도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S자 길이 대부분인 지대라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았다. 그러나 12시에 목격지인 신현교회(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소재, 양경운 전도사 시무)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도착 예배를 드린 후, 신현교회

집사님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먹음직스런 찰옥수수를 한솔 썰내어 오셨다. 시장했던 대원들은 금새 그 많던 옥수수를 속대만 남겨 놓았다. 그제서야 맑은 개천물, 둘러선 길쭉른 산중턱에 걸린 구름이 눈에 들어왔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이 연발, 그러나 내 의식 속에는 이미 정선, 그 낭만적 환상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오직 전도자”라는 생각으로만 차 있었다.

대장 윤 집사님은 어느새 우리 전도대를 전도팀, 교육팀, 봉사팀(의료, 미용)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파트를 짜놓으셨다. 저녁식사 전까지는 각 파트별로 지역 답사를 하기로 했다. 나는 윤 집사님과 같은 파트가 되어 우리가 맡은 지역의 가호 수를 확인하고 돌아왔다.

다음날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축호 전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다. 주민들은 “우리는 불교 믿어요, 산당에 나가요.” “나는 유교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동네 어귀에다 차를 대놓고 윤 집사님과 먼저 기도한 후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외딴집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는 전도하고 저녁집회 전에는 차를 가지고 거두러 나갔다. 아침에 뿌린 씨앗이 저녁에는 뿌린 것보다 더 많은 열매로 길가에 굴러내려와 있었다. “집사님, 여기에도 있어요. 또 저기에도 / 그리고 저쪽에도, 아니, 그쪽엔 더 많군요. 한 차에 다 못거두겠네요. 제가 여기 있을테니 빨리

한번 더 갔다가 오세요.” 우리는 그 열매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여 즐거운 농부같이 땀땀이 되면서도 그것을 거두어 천국잔치에 실어 나르기에 신바람 났다. 하룻 저녁에 몇 번씩. 이리하여 마지막 집회에는 96명이 참석하였고 나는 너무나 감사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려내렸다. “아 / 이거였구나, 바로 이것이야.” 나도 모르게 감탄이 절로 나왔다. 내가 찾고 있었던 것 그 무엇인가를 찾은 것 같았다. 결신자 60명의 명부를 작성하여 신현교회 양경운 전도사님께 드리고 나니 뭔가 가슴에 꽉 차는 것 같았다. 정말 전 대원 모두들 열심히 전도한 결과였다. “열중쉬어” 자세가 “열중차렷” 자세로 저절로 되어지는 분위기의 이홍성 목사님, 그리고 농촌전도에 대해서는 거의 직업의식을 발동하시는 윤장원 집사님, 그 집사님의 파트너 중 하나였던 내가 어찌 전도에 열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식욕조절을 정도로 전도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명령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에 행복해 한다. 세상 행복이란 순간 일뿐 나는 늘 무엇인가 몰두할 수 없고 빠질 수 없고 목숨걸 수 없음을 자책하며 괴로워했고 내 삶의 연결고리를 무엇으로 조율할 것인가를 항상 고뇌스러워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행복, 나는 이것을 농어촌 전도에서 발견하여 한아름 안고 돌아왔다.

■ 신간안내

기독교사회학

세계의 예수 공동체 로날드 블로쉬 / 무실
물질 축복 피터판 / 두란노서원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 이만열 / 지식산업사
복음과 문화 조종남 / 한국 기독

▶ 독자의 시

회심

김 은 영(16교구)



별빛조차
아픔으로 무너져 내려
소리없이 외침이
밤을 부술 때

어두움의 영혼을 빛으로 태워
가슴깊이 밝혀주신 사랑의 주님

시간의 열레를
나날이 엮어
고통의 기억만 채곡히 쌓았기에
사랑과 용서를 알게하시려
그리도 오래 침묵하시었나.

죄악의 씨앗을 정으로 쪼아

바람결에 남김없이 불어버리고
순종의 가슴만을 주님께 드렸으면...

사랑과 헌신의 고운 자태를
씨줄 날줄로 정교히 엮어
비전과 꿈을 향해 달음질하며
상크레한 웃음으로 살아가야지.

주님의 두 손에
몸을 맡기고
주님 가신 길 뒤따라가면
믿음이 씨앗은 소리없이 자라나서
가득한 열매로
주님께 바쳐지리.

독자의 난

검은 먹구름 속의 찬양

정정주(안수집사·제14교구)

언제부터인가 검은 먹구름이 교회에 일기 시작했고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엄습해 오기 시작하였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하여 거대한 집회도 국제적인 행사도 능숙하게 잘 길들여진 교회가 되어 왔다.

이러한 행사나 집회 때마다 세상에 잘 드러내는 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잘 해왔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방법과는, 행하시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들이었고 전혀 다른 형태의 길을 걸은 것들이 되었다.

단적으로 통제와 제도권 하에

서의 교회 모습은 손색이 없었다고 해도 참 좋을 것이다.

교회의 참 모습은 주님만을 드러내고 높이고 앞세울 때에 나도, 교회도 다른 사람, 다른 교회가 드러내주며 높여주는 것이다. 화려한 표어는 무성하게 많았지만 그 당시 입에서만 외치는 것으로 끝났고, 아름다운 구호 뒤에는 시달림과 썩은 소리의 울리는 눈물이 있었다. 크고 웅장한 건물과 많은 성도의 물결 속에는 작고 작은 성도의 소외됨과 한숨짓는 가냘픈 목소리가 주님께 호소하였으나, 위대한 권위와 거대한 외침 앞에 가리워지고

묻혀지고 드러나는 것조차 두렵기만 하여 이르게 된 것을 신령한 눈과 귀가 선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으신 분은 잘 알고 염려하여 온 것을 본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온 먹구

름은 작은 소자 하나, 비천한 자의 흐느낌을 외면하고 소중히 여길 줄도, 들을 줄도 모르는 큰 것에 눌려버린, 소멸시켜버리는 데서 기인된 것에도 적지 않았음을 간파해본다.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크게 귀를 기울이고 많은 것보다는 지극히 적은 것에 큰 비중과 관심을 쏟으시는 신령한 눈과 귀와 온화한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소망하면서 간구

“주님만 드러내고, 높이고, 앞세우며 청결한 몸과 마음으로 성결을 도모해야”

보시며 그 수를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확신이 크기 때문일까?

이제 총현교회에 어두운 그림자로 검은 먹구름으로, 드디어는 폭풍우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사건 속에 주님의 고귀한 보배로운 피의 값이 웅비되어 있었고 측량 못할 사랑과 광명한 빛이 비취임을 알았고 보았고 또 확인한다.

찬양과 감사를 눈물로 주님께 바친다.

빛난 면류관받기까지, 우리도 두 험한 십자가를 꼭 붙들고 불의를 비위하는 의로움으로 주님 편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경건한 성도 먹구름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신령한 분별력이 있는 총현의 성도가 되어질 것을 고대하며 소망하면서.

작년 말쯤으로 기억된다. 그 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그룹성경공부를 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얘기하자 아내는 무척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시네요. 시기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나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였기에 그런 나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안도감과 감사와 기쁨으로 한 고백이었을 것이다.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을 스치는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아내의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번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좌절할 때 용기를 주시고, 실패할 때 희망을 주시며, 연약할 때 새힘을 주시는, 또한 절절로 가려 할 때 붙들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쳐시는 하나님인 것을

... “하나님 아버지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번 안수집사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락방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헌신했는지, 실험선교회, 70인전도대, 세계선교훈련원, 선교실행위원회 등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내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후보로 선정된 후에 나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신앙의 새로운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기회가 되었다. 교구 추천에서부터 당회의 후보 선정, 공동의회에서의 선출을 앞두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다. “이기성,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신중한 기회가 되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직스럽게 주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 부서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터쫓대감 노릇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평소에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비취었는지, 그분들에게 위로와 기쁨보다 안타까움과 실망만을 전달하지 않았는지, 어떤 모임에도 단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기뻐했는지?” 이는 질문에도 나는 “예”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아울러 “내 때가 아직 이르

다”라는 말씀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 생활을 점검하게 하셨다. 이처럼 좀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생활의 무대에 좀더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 안수집사 선출을 통해서 나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기도의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됐으며 나를 아끼고 진심으로 성숙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는 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좀더 진실하고, 좀더 성숙한 진자로서 실망과 안타까움보다 위로와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 기 성 집사
(10 교구)

성극경연대회 순연 오는 11월 1일~2일

교회설립 38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제2회 성극경연대회는 보다더 충실한 연극무대를 준비토록 오는 11월 1~2일로 순연케 되었다.

한편 동 준비위원회는 10월 20일(주일) 오후 4시 30분 선교관 401호실에서 출전팀의 연출자, 기획자 모임을 갖는다.

찬양합창제 개최기로

찬양위원회(위원장 오태희장로)는 찬양합창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찬양합창제는 11월 2일 개최 예정으로, 우리 교회의 찬양대가 참가하게 될 이 합창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